

海外의

科学 저널리즘

玄 源 福
(科学저널리스트)



◇ 봄이론 科学저널리즘

70년대말 이래 美国과 日本등 선진산업사회는 일찌기 없었던 科学저널리즘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

大衆科学誌의 경우 美国의 펜트·하우스가 창간한 월간지 옴니 'Omni'는 첫째에 75만부의 보급부수를 확보했고, 美科学振興協會(AAAS)가 일반대중을 위해 '79년 가을 창간한 사이언스80 (Science 80, 해마다 제호는 사이언스 81, 82로 바뀜)은 1년내에 60만부의 고정독자를 확보한 뒤 파죽지세로 부수가 신장되어 최근에는 1백만부를 돌파했다. 이어 80년 가을 타임·라이프사가 창간한 科学時事誌인 월간 디스커버(Discover)는 오늘날 1백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고정독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래에는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전문저널의 구실을 해오던 AAAS의 주간 사이언스(Science)도 최근에 와서 고등학생층까지 파고 들기 시작

해서 그 발행부수는 해마다 10퍼센트 안팎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美国의 주요한 일간종합지들도 科学리포트와 해설기사를 크게 확장할 기세에 있다. 예전대 뉴욕·타임스는 매주 화요일마다 '과학판'을 별도로 부록으로 펴내고 있고, 지방지인 미네아폴리스 스타아(minneapolis Star)는 이른바 과학취재기동반인 SEEM(Science, Energy, Environment, Medicine) 팀을 새로 발족시켜 6명의 과학전문기자들이 과학, 에너지, 환경, 의학분야의 심층보도를 하고 있다. 英国의 권위지인 더·타임(The Time)지도 날마다 제 2면에 과학란을 게재하고 있다.

日本의 과학저널리즘도 최근 2~3년내에 폭발적인 붐을 구가하고 있다. 새로 창간된 몇몇 과학지들은 '自然' '科学' '朝日科学' '사이언스'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과학지들을 제쳐놓고 중학생, 부녀층 그리고 노인층까지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예전대 '81년 7월 창간한 월간 '뉴턴'은 창간

호 25만부로 시작하여 불과 6개월만에 40만부로 늘어났으며, 같은 해 5월 창간한 '코스모81'(격월간)은 7만부를 찍은 창간호가 동이 났고 계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 3월에는 講談社가 「과학세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스콜라(월 2회), 旺文社가 월간 과학지 '옴니'를 펴내기 시작하여 착실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科学저널리즘은 정기간행물 뿐만아니라 단행본계에도 큰 바람을 몰고 왔다. 예컨대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는 美国에서 거의 60주동안 베스트 셀러의 자리를 굳혀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번역판은 16판이나 나와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갔다.

美国의 TV 科学프로그램도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美公營TV의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8년간의 장수를 누리고 있는 '노바'(Nova)는 5백만의 고정시청자를 자랑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TV에서도 상영하고 있는 아동교육TV프로그램인 '세서미·스트리트'(Sesame Street)의 제작자인 뉴욕의 CTW는 최근 8~12세 어린이들 1천4백만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프롤을 방영하기 시작하여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크게 늘어난 讀者層

선진국의 科学저널리즘이 최근 몇해를 두고 불안간 붐을 이루게 된 동기나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 몇가지로 수렴할 수 있다.

첫째, 美国의 경우 시민들의 과학지식에 대한 욕구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학물에 대한 수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층은 30대. 2차 세계대전후 베이비·붐時代に 태어난 이들은 50년대 후반이래 우주경쟁시대를 통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철저한 科学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몸에 배어 이제 30대로 들어 와서 생활의 기반을 잡은 뒤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思春期

전후에는 누구나 과학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받은 과학교육이 평생을 두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좌우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둘째, 최근 선진국의 科学저널리즘이 크게 성공을 거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다루는 내용이 순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소개에 그치지 않고 과학과 정치, 과학과 경제, 과학과 사회, 과학과 문화등 과학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호관계를 풀이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科学의 내용을 잘 소화한 뒤 이것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풀어 썼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진과 풍부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보면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과학잡지들이 거의가 과학자나 연구자들의 어려운 논문으로 메우다시피한데 비하면 「科学과 일반인간의 架橋」구실을 맡고 나선 이 매체들은 과학을 시민의 손에 잡히게 만들었다.

셋째, 독자층의 기호의 변화로 돌리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 만화나 SF등에 팔리던 독자들의 눈이 좀더 진실한 것을 찾아 나섰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독자층이나 시청자층중에는 자기들의 하고 있는 일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우주나 동물세계속에 파묻혀 잠시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중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외면한다면 이 과학문명시대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과학대중매체를 의식적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 点火는 TV科学프로그램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반의 과학지식 수요에 불을 당긴 것은 TV의 보급과 TV과학프로그램의 제시방법이 뛰어나게 세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시청자들은 TV화면을 통해 지금까지 외면했던 과학과 사회의 연관관계를 이해 하므로써 과학

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붙이기 시작하고 이런 관심도가 차츰 높아지면서 궁극한 것이 많아져 신문의 과학란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과학잡지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8년의 장수무대를 누리고 있는 美国의 TV프로그램 ‘노바’의 제작방침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의 첫째 목적은 우선 시청자들에게 관심과 즐거움을 주자는 것이고 지식과 이해는 2차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 제작진은 거의가 科学者が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시청자들의 이해수준을 미리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의 주제는 科学界는 물론 일반이 제시한 것중에서 선택한다. 지금까지 이 프로에서 큰 관심을 모은 주제중에는 원자로의 안전성, 水資源 정책, 遺工工学등과 같은 것이 있었고 有害食品이나 바다의 오염같은 주제도 좋은 평을 받았다. 제작진들은 「과학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人間の 드러머」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차례 방영된 세이건의 ‘코스모스’ 시리즈는 그 제작목적이 「광대한 바다에서 한톨의 모래알과 같이 우주속에 두둥실 떠있는 人間과 宇宙의 가장 깊숙한 관련성을 파헤치려는 것」이었다.

◇ 広場구실을 하는 科学綜合誌

한편 科学종합지들의 기능은 科学기술의 첨단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광장을 제공하고 분야를 달리하는 연구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리구실을 하면서 과학자, 과학정책수립자, 일반인을 과학의 공동체로 묶는 구실을 한다. 특히 전문화경향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 과학기술자들이 「나무에 가려 숲을 보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이 과학종합지가 존재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종합지는 뜻 있는 재단이나 단체나 또는 대형출판사들의 재

정지원 없이는 존속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예전대 세계적인 과학종합지인 주간 사이언스(Science)가 창간 1백주년이 넘는 오랜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재정지원을 美国国立科学財團(NSF)에서 받고 있다. 이 잡지는 1880년 7월 당대의 발명가요 사업가인 토머스 에디슨의 재정지원으로 창간되었고 그 뒤 전화의 발명자인 그레험·벨과 그의 장인 가디너·하버드가 10년간 뒤를 밀어 주었다. ‘사이언스’가 발행부수 1만부에 도달하는데 3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으며 오늘날 AAAS의 기관지로서 정착하여 16만부를 찍어 내고 있다.

‘사이언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저명한 과학종합지인 ‘네이처’(nature)를 대형출판사인 맥밀런社가 펴내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과 인류 발전에 있어서의 과학종합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런 대형출판사들이 다른 여러 출판물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밖에도 日本의 ‘科学’이나 ‘自然’ 등 과학저널등도 대형출판사에서 펴내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종합과학지 ‘라·레쉴르쉬’(La Recherche)는 오늘날 10만부를 넘는 권위지로 발전했으나 한때 2,500부의 발행부수로 폐간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일도 있었다. 당시 ‘아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잡지는 2차대전이 끝날 무렵 프랑스가 자랑하는 위대한 물리학자 프레데리크·조리오·퀴리가 창간했었다. 프랑스의 대형출판사인 스이유社는 이 유서깊은 잡지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툼’을 인수하여 편집과 내용을 크게 쇄신한 뒤 4년만인 1970년 발행부수를 1만5천부로 끌어 올렸다. 이해 잡지이름을 ‘라·레쉴르쉬’로 바꾸고 산뜻한 장정으로 새출발했다. 그런데 이무렵 프랑스의 연구자금지원사정이 나빠지면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중요성을 외부에 호소하기 위한 매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라·레쉴르쉬’는 해마다 발행부수가 늘어나 오늘날 세계적인 과학종합지로 성장한 것이다.